

“한국불교 지나치게 상품화·선불교 훼손”

현각 스님 e-메일 인터뷰 (A1면서 계속)

—유럽으로 처음 갔을 때 규모가 큰 한국 불교 사찰을 세우고자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날 때, 한국 사람들의 기대와 그들이 한국의 전통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을 느꼈고, 특히 서양사람이 외국에 큰 규모의 사찰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 불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으며, 때문에 저도 외국에 사찰을 설립하는 것을 통해 보답하고 싶습니다. 전 이에 대해 이미 언급한 바 있으며, 또한 그러한 사찰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양으로 와서 보니 생각했던 것과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양에 사찰을 짓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설계사, 변호사들과 회의를 하면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 하는 등 많은 노력과 참을성을 필요로 합니다. 예전에는 신심있는 서너 그룹의 재가 불자들이 몇 년 동안 지원을 해주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금적으로 저를 지원하는 단체도 없습니다. 현재는 영어번역 작업을 하면서 월세와 의료보험료와 같은 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승일 뿐입니다. 오로지 참선수행 할 뿐입니다. 관리적인 측면이나 행정실무와 관련하여 해박하지 않고, 관료문제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사찰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 저는 사찰을 관리하는 많은 주지스님과 비구니스님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정신적인 수련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작업에도 많은 정신력을 쏟고 있으니까요.”

—추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저는 방랑자입니다.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정신을 열 수 있는 기술을 깨우쳐주고 제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드립니다. 진실되고 근본적인 선은 건축물과 구조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선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고 속세에서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입니다.”

—‘기술’이요?

“네, 기술이요. 참정신을 여는 기술을 참선이라고 합니다.”

—왜 ‘기술’이라고 부르니까?

“알고 계시다시피 절대, 선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 데올로기도 교조도, 어떠한 체계에 대한 믿음이나 신조, 신앙도 아닙니다. 화두선은 ‘자신에 대한 참된 이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선, 절, 예불, 주력/진언, 관세음보살, 옴마니반메훔 등, 동일한 문구를 반복합니다. 특정한 자세를 취하고 호흡 기술 또는 소리를 통해 개념적인 생각을 넘어서서 본래 타고난 무한한 정신적인 자유를 깨우칩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 ‘마음 기술’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유럽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많은 유럽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종교



현각 스님은 ... 허버드대 재학시절 송산 스님을 만나 출가했다. 현재 독일 뮌헨에서 불이선원을 열어 서양인들에게 불법을 전하고 있다.

에 대해 매우 회의적입니다. 우리는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석가모니 부처님 역시 매우 과학적인 스승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께서 생을 마감할 무렵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말을 단지 내가 했다는 이유만으로 믿지 마십시오. 내가 한 말들을 시험해보십시오. 자신의 경험에 비하여 시험해보십시오. 내가 한 말이 진실 된 것 같으면 나는 진실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내가 가르쳐준 말이 거짓 같으면 나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매우 과학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E=mc²’ 에너지 보존법칙이나 상대성이론을 믿고, 이것이 우주를 설명해준다고 이해하는데, 이는 그것이 단순히 아인슈타인이 그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수의 과학자들이 수만 번의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값이 ‘E=mc²’를 증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선불교는 종교보다 기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서양에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과학적이지 못한 종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상에 의해 얻는 과학적, 기술적 통찰은 깊이 존중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날 한국 불교의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저는 한국 불교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중점적 기술인 선 불교, 즉 참선, 화두 선이 한국 불교를 우리가 강조해서 서양으로 전파 할 부분입니다.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 종교와 종교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양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선불교의 큰 가르침을 과거의 종교적 표현으로만 전파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사고, 자연스러운 회의감과 함께 투명하게 소개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 우리의 가르침은 과학과 현대 기술과 함께 발전해 가야하며,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불교의 소중한 보물이 지적이고 책임감있게 소용되지 않는 것을 보면 자연스레 걱정이 됩니다. 과거에 지나치게 집중 하는 것을 보면 염려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비구니가 비구와 동일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서양의 시각만이 아닙니다. 저의 스승인 송산 대선사님께서 1972년 서양에 가셨을 때, 그는 여자와 남자를 동등하게 대우했습니다. 서양의 사찰에서는 스님들이 법랍 순으로만 앉습니다. 비구니가 하루라도 저보다 먼저 출가 했으면 저보다 먼저 앉고 저는 그 뒤에 앉습니다. 서양인으로서 저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2013년입니다. 비구와 비구니들 사이에 절대적인 평등이 있어야 하며, 그들에 대한 차별은 전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세계의 교육받은 어느 사회에서도 지지 받지 못하는 사회적 차별의 전파 때문에 한국 불교가 교육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비난 받을 때 마다 부끄럽습니다. 한국은 여성 대통령을

비구와 비구니 스님 동등한 대우받아야 템플스테이, 정신적 깨달음 강조안해 문제 한국불교 선 수행, 서양에 전파할 자산

당선시킨 나라가 아닙니까? 유럽의 가장 강력한 정치인, 독일의 안젤라 메르켈 수상 역시 여자입니다. 한국 불교는 변화하는 현대 사회를 당연한 자세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

—25년 넘게 수행해오셨는데 한국 불교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불교계는 현대화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변화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이 문제와 맞닥뜨려 있습니다. 몇몇 종교는 현대적인 시각에 대응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다행히도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에 의해 참선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참선은 혈압을 낮추고 뇌파와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며 숨이 깊어지도록 도와주고, 의사 결정이 더 집중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과학적으로 측정 가능한 기술의 매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불교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서양 스님들은 이것을 큰 실수라고 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불교를 ‘깨달음’에서 단순한 문화 차원을 강조하는 관광 수단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정부가 깨달음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사찰의 표표방범에 있어서 금전적으로 관여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템플스테이는 수행이 아닌 문화적인 프로그램임

을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한국 최고의 관광 자원인 아름다운 사찰을 극도의 효율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템플스테이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친걸까요? 성철스님과 구산스님이 상상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템플스테이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 따른 성장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사찰 방문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산업이자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관광 산업에 사찰과 전통을 이용하기로 결정된 결과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수박 겉핥기일 뿐입니다.

이 정점은 인기가 없을 수 있지만 저는 템플스테이가 한국 불교의 전파에 있어 최선이 아니라고 굳게 믿습니다. 사실 저를 비롯한 많은 서양 스님들은 좋은 의도로 시작된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정부가 개입하게 되고 우리의 가르침과 표현방법에 대해 자금과 정치적 영향을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하려는 이야기는 이상황을 더 잘 설명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내는 독일인 제자와 동행했는데 교육을 많이 받은 젊은이로 스님이 되기를 원하는 제자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바로 화계사로 갔습니다. 저는 스승님의 사리탑에 절을 하고 서양에 한국 불교를 전하고 있는 가르침의 본거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동행을 통해 제자의 신뢰를 높여주고 전통을 존중하도록 교육하고 싶었습니다.

그 후 종탑 앞에 섰습니다. 석가탄신일을 위해 종탑 하단에는 아름다운 등이 달려있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의 그림이 있는 큰 등이 있었으며 바로 옆에는 코끼리 그림이 있는 큰 등이 있었습니다. 제자는 코끼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고 저는 아시아 불교 국가에서는 코끼리가 부처의 이미지라고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그림은 한국 불교가 오늘날 어디에 와있는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다음 두 그림은 싸이가 강남스타일 춤추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이것이 석가모니 그림 옆에 나란히 걸려있었습니다. 그 상황은 머릿속에 정말 강하게 각인되었습니다. 유럽인 제자 역시 이것이 심각하게 반응하고 물었습니다. “스님! 왜 송산 대 선사님의 위대한 사찰에 대중문화를 전파하는 이미지가 부처님의 그림 바로 옆에 나란히 있습니까?” 이것이 제자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그 질문에 대답을 못 했습니다.

템플스테이는 한국 불교인들의 자긍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문제이기도 합니다. 단지 국가의 성공과 권력 때문에 한국 선 불교의 중요한 정신적인 이점들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제일 가는 보배는 불교 가르침, 그 중 한국불교의 화두선입니다. 왜 그렇게 천박하게 파괴해야합니까? 요즘 우리는 깨달음을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 행사에 페이스북과 대중 매체의 관심이 얼마나 집중되는지를 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불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가 지원하는 관광입니다. 부디 진실되고 본질에 맞는 이름으로 이것을 일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템플스테이는 중요한 경제적 기회와 대중 매체 속에서의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수도 있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하다고 강하게 믿습니다. 템플스테이는 깨달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속세와의 연결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다른 종교들은 템플스테이에 대한 정부의 불교 자금지원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불교 사찰들이 정신적 깨달음의 차원에서 보다 문화사찰에서의 경험을 강조하게끔 요구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는 문화적 경험을 절대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깨어나고 고통으로부터 모든 존재를 구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템플스테이는 아프고 배고픈 사람에게 코카콜라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기분이 좋지만 건강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템플스테이에 들어가는 모든 자금이 정부에서 지원되므로 불교계 스님들은 여기에 가깝게 연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한국 수녀님 한 분이 템플스테이와 관련된 현 상황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병원이거나 고아원 유지를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그러한 지원 자금이 성당과 관련하여 절대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당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교리를 전파하는지 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찰에서는 왜 정부가 이렇게도 깊게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을 전달하는 방법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두었는지요?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선을 가르치는 것은 제게 큰 즐거움이고 열정입니다. 그러나 요즘 한국 불교는 지나치게 상품화 되었고 또 하나의 관광 상품이자 상업적 문화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많이 슬퍼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스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가르쳤던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몇 달 전 몇몇 스님들이 관광객들에게 템플스테이 소개를 위해 베를린의 관광 박람회 부스로 초대 받았습니다. 뉴스에서 동료 스님들을 봤을 때 그 사진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관광 박람회에서 엄격한 승복을 입고 있어서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사찰에서 연등을 만들도록 책자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돈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깨달음은 중요하지도 않아요. 단지 수박 겉핥기일 뿐입니다.

아마도 경호 스님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 정신적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그 분은 생의 마지막에 다달아 조용하게 자기 수양에 임하기 위해서 홀연히 사라지셨는데, 저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여러분 앞에서 제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디선가에서 여러분과 같이 자기수양을 위한 참선과 아쉬탕가 요가를 하며 함께 정진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자승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회주 연암 현해
주지 퇴우 정념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제 4 교구 본사 월정사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번지 | 033)339-6800 | www.woljeongsa.org

